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시장 재진출 움직임*

연구위원 최순영

2018년에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을 대거 축소·철수했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다시 아시아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글로벌 투자은행의 철수로 발생한 공백을 지난 수년간 중국 투자은행들이 잠식했으며, 특히 저가 수수료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2011년 이후 국내 위탁매매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국내와 더불어 해외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온 관계로 해외사업의 입지는 위축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투자은행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증권사들은 변화하는 경쟁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사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아시아 시장 귀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대거 축소 또는 철수하고 모국 시장 중심의 체력비축 전략을 펼쳐왔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씨티(Citi), 바클레이즈(Barclays), UBS,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등 글로벌 유수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력을 대거 감원하고 일부 사업을 매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아시아 시장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미 인력 충원 및 사업 확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의 철수로 발생한 아시아 시장의 공백을 중국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 온 결과,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아시아 시장 중심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 입장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시장 행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했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 재진출에는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돋보인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대거 인력 감원을 실시하였으나 2017년에 들어서는 아시아 지역의 재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호주 및 중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1], 모건스탠리는 자산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2] 2012~2015년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력의 10~15%를 감원한 씨티의 경우에도 2017년에 들어서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신규 채용을 단행한 바 있다.[3]

유럽계 투자은행도 아시아 지역 재진출에 가세하고 있다.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대만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아시아 지역 자산관리 사업을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에 매각하는 등 지난 수년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왔던 영국의 바클레이즈(Barclays)도 아시아 시장 재진출에 나서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및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자산관리 사업에 재진출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4] 독일의 도이치뱅크와 스위스의 UBS도 자산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들 투자은행은 초부유층(ultra high net worth)의 규모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5]

여기에 일본의 노무라(Nomura)도 아시아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인프라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2017년 6월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소하고 최근 들어 싱가포르 및 홍콩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다.[6] 또한, 다이와 증권(Daiwa Securities)도 2016년 베트남 증권사와 말레이시아 투자은행에 지분투자를 하는 등 지난 수년간 동남아시아 중심의 해외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7]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간 미국 및 유럽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중국 증권사들이 주로 메워왔다. 중신증권(Citic Securities), 해통증권(Haitong Securities) 등 중국의 주요 증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은 프랑스 크레딧아그리꼴(Credit Agricole)의 아시아 투자은행 사업부분 CLSA 증권을 인수하면서 해외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수수료수익 중 중국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16.5%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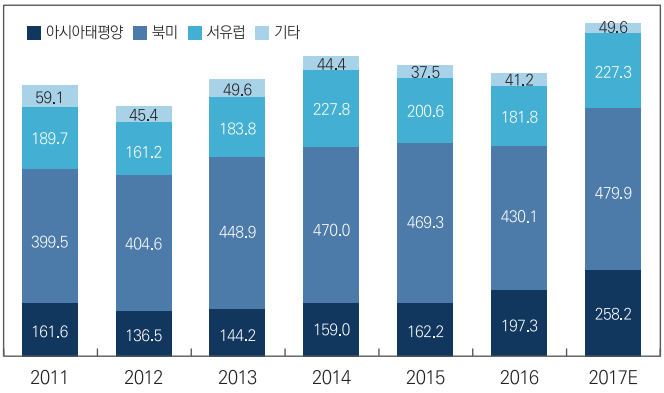
1) The Australian, 2017.5.17, JP Morgan shake-up ahead of Asian Expansion.
2) Financial Times, 2017.5.22, Investment banks target Asia Pacific expansion.
3) Financial Times, 2017.5.29, Citi to expand corporate banking in key Asia-Pacific corridors.
4) Financial Times, 2017.11.27, Barclays plans to send private bankers back to Asia.
5)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10.3, UBS looks to appoint an Asian to board of directors as it eyes expansion in the region.
6) Straight Times, 2017.6.7, Nomura aiming for greater presence in Asia.
7) Nikkei Asian Review, 2016.2.22, Daiwa to invest in Southeast Asian financial firms.

2016년 43.8%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 1/4~3/4분기 누적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39.3%에 달한다.[8] 특히 중국 증권사들은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IPO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1% 미만인 경우도 있다.[9]

이처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아시아 시장 재진출을 추진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높은 성장세에 기인하다. 투자은행업무 시장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수료수익 규모는 2011년 161.6억달러에서 2017년 258.2억달러로 59.8% 증가했으며, 이는 동 기간 전체 글로벌 투자은행업무 수수료수익이 25.3% 증가한 것에 비하여 2배가 넘는 성장세이다.[10] 특히,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투자은행업무 수수료수익 규모는 2011년 대비 2017년 각각 20.1%, 19.8%의 증가에 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의 절반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글로벌 투자은행업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아시아(25.4%)는 북미(47.3%) 다음으로 높으며, 서유럽(22.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투자은행업무 수수료수익 추이

(억달러)



주 : 2017년은 3/4분기 누적 값 기반 추정치
자료: Thomson Reuters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 퇴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아시아 투자은행 시장의 공백은 국내 증권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꾸준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진출 국내 증권사 수는 2010년 20개사에서 2017년 15개사로 25.0% 감소했으며, 해외점포 수는 2010년 93개에서 2017년 66개로 29.0% 줄어들었다.

8) Financial Times, 2017.10.25, Chinese lenders slide down investment banking league tables.
9) Bloomberg, 2017.6.7, Chinese giants are taking over Hong Kong.
10) 2017년 수치는 3/4분기까지의 누적 수수료수익을 기반으로 연간 수수료수익을 추정한 수치.

국내 증권사의 해외사업 축소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국내에서의 구조조정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1~2014년 사이 국내 위탁매매시장의 침체와 높은 연계성을 지닌다.[11)]

해외진출 국내 증권사 및 해외점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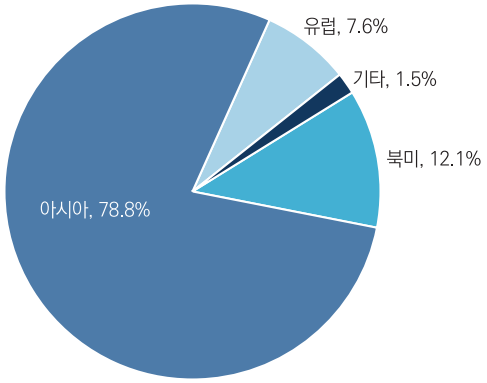
(단위: 개)

연도	증권사 수	해외점포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총계
2009	19	36	1	43	80
2010	20	37	2	54	93
2011	19	33	3	60	96
2012	20	26	3	60	89
2013	20	23	2	64	89
2014	19	20	2	61	83
2015	18	19	0	59	78
2016	18	16	0	56	72
2017	15	14	0	52	66

주 : 2017년은 9월말 기준, 기타 연도는 12월말 기준
자료: 금융중심지원센터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이 그간 글로벌 투자은행의 사업 축소나 철수가 이루어졌던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7년 9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전체 66개 해외점포 중 78.8%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 증권사의 해외사업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백으로 제공되었던 기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계 증권사로 보인다.

지역별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비중(2017년 9월)



자료: 금융중심지원센터

11) 최순영, 2016, 국내 위탁매매시장의 부침과 증권사 해외진출과의 동조화, 「자본시장 Weekly Opinion」 2016-21호, 자본시장연구원.

맺음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2018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재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모국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성이 안정화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계 증권사의 공격적인 해외진출과 괄목할만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아시아 지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지난 2~3년간 국내 위탁매매시장의 회복 등에 기인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해외진출 여력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국내 증권사들은 동남아시아에서의 현지 증권사 인수 등 해외사업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증권사의 해외사업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사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